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의 사격 경기대회를 지도하시고 조선인민군 화력타격훈련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의 사격경기대회를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사격경기대회를 지도하시기 위해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고 매일이라도 보고싶은 미더운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군의 모든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건군사에 일찌기 없었던 사격경기대회를 진행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경기대회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인들이 정치사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잘 준비되어있어도 사격을 잘하지 못하면 맡겨진 전투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이 총을 잘 쏘야 군인들을 백발백중의 명사수로 키울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전군에 명사수, 명포수운동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하여 이번 사격경기대회를 조직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사격경기 시작할때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사격경기는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속에서 선발된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이 제정된 거리와 시간에 목표를 쏘아 맞힌 점수를 가지고 군중, 군단급, 개인별등수를 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경기에 참가한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은 평시에 번마한 사격술을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이 목표를 정확히 명중하여 높은 점수를 맞을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보내주시였다.

참가자들의 드높은 열의속에 진행된 사격경기에서는 조선인민군 제233군부



대, 제604군부대가 1등, 조선인민군 해군, 조선인민군 제287군부대, 제318군부대가 2등, 조선인민군 제549군부대, 제569군부대가 3등을 쟁취하였다. 개인별등수에서는 조선인민군 제380군부대관하 중대정치지도원 리영철, 제604군부대관하 중대정치지도원 강은철, 중대장 박인숙동무들이 1등, 조선인민군 제488군부대관하 중대장 리상철동무가 2등, 조선인민군 제313군부대관하 중대정치지도원 전영길, 제233군부대관하 중대장 리광혁, 제549군부대관하 중대장 승명식, 제593군부대관하 중대장 김광현, 제287군부대관하 중대장 한옥주동무들이 3등으로 평가되였다. 경기대회에서는 시상이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오늘 진행된 사격경기대회를 통하여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이 자신들부터 명사수가 되

여야 모든 군인들을 명사수, 명포수로 키울수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게 되였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사격훈련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전군의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이 조선로동당의 훈련제일주의방침을 높이 받들고 실천의 분위기속에서 훈련을 강도높이 진행함으로써 사격경기대회에서 울린 총성을 최후승리의 축포성으로 이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화력타격훈련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으로부터 영접보고를 받으신 다음 감시소에서 훈련진행계획과 타

격부대들의 배치상태에 대하여 청취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훈련을 시작할때 대한 명령을 주시였다. 구령이 내리자 하늘을 썰며 급강하하는 영웅한 비행대들과 각종 지상포대에서 시뮬건 불줄기들이 연해연방 뿜어지고 목표구역들에서는 삼단같은 불길이 치솟아올랐다. 우뢰같은 폭음과 포성이 하늘과 땅을 진감하는 속에 목표들이 송두리채 날아나는것을 보면서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은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환호를 울리며 격정을 누르지 못하였다. 혁명적신념과 배짱의 최고화신이신 회세의 천출명장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을 닮은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전투적기상을 만천하에 떨친 훈련은 가슴후련히 계속되였다.

훈련장상공에 축포탄이 장쾌하게 터져 올라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의 가슴마다에 희열을 더해주었다.

훈련은 무비의 담력과 강철의 의지, 탁월한 지략으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온갖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자위권을 견결히 수호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아래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난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은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선군령도로 조선인민군을 천만대적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강군으로 키워주시고 강위력한 자위적국방력을 튼튼히 다져주시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위대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총대로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기어이 완성하고야말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훈련에 참가한 인민군장병들이 사회주의조국을 철옹성같이 수호할수 있게 튼튼히 준비된대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훈련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강철의 정예대오인 조선인민군이 있기에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은 금성철벽이며 우리 당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이 오늘 진행된 훈련을 보면서 중대를 펼칠 나는 일당백의 싸움군들의 집단으로 꾸릴 결심을 더 굳게 가지였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전군의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이 중대에 돌아가면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다진 맹세대로 싸움준비완성과 전투력강화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중대를 무적필승의 전투대오, 최정에혁명강군으로 만드려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제36차 군무자예술회축전에 당선된 중대군인들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제36차 군무자예술회축전에 당선된 조선인민군 제251군부대, 제905군부대, 제565군부대, 제1821군부대관하 중대군인들과 조선인민군 해군 제167군부대관하 잠수함 730호 해병들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중대군인들은 이야기와 노래 《백두산 절세위인들과 초도병사들》, 저대2중주와 중창 《어머님 이야기 꽃이 폼니다》, 대화시와 노래 《한마음 따르렵니다》, 막간극 《바다속의 〈정든 집〉》, 합

창 《운명도 미래도 맡긴분》, 실화 《장군님의 마음안고 왔습니다》, 2중창과 방창 《불타는 소원》, 극중창 《사회주의 지기세》, 합창 《오성산에 발걸음소리 울린다》, 독창과 합창 《조국찬가》, 대화시 《영원한 삶의 품》, 기타병창 《정찰병의 노래》, 토막이야기 《두 병사와 분대장》, 합창 《7.27행진곡》, 시와 합창 《최고사령관기 날리며 승리를 떨치리》 등 여러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공연을 통하여 군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보람찬 군무생활을 이어가는 자기들의 복된 삶과 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그이의 두리에 정과 뜻으로 굳게 뭉

쳐 따르는 혼연일체의 위력을 감명깊이 펼쳐보였다. 공연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우려는 신조, 수령결사옹위의 길을 발사된 총탄마냥 곧바로 가려는 일편단심, 사회주의조국을 총폭탄되어 옹호보위하려는 인민군군인들의 결사의 각오를 뚜렷이 과시하였다. 관람자들은 승리의 열병식광장에 원수님을 모시고 전승의 보고를 드릴 중대군인들의 철석같은 맹세에 자기들의 불같은 마음도 합치며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냈다. 공연이 끝나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내는 뜨겁게 끓어번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에게 손을 저어 주시며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중대군인들이 정책적대가 뚜렷하고 혁명적군인정신이 맥박치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그들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제1821군부대, 제565군부대관하 중대군인들과 조선인민군 해군 제167군부대관하 잠수함 730호 해병들이 당군인 우리 군대의 성격과 사명, 혁명적본태가 무엇인가에 해답을 주는 종목들을 무대에 올리였으며 인민군대의 세포이고 기본전투단위인 중대강화를 위해 투쟁하는 자기들

의 모습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펼쳐보였다고, 공연을 잘하였다고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제36차 군무자예술회축전에 참가하여 조선인민군의 사상정신적품모를 힘있게 과시한 군인들이 앞으로도 훈련과 군무생활에서 보다 큰 군공을 세워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시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중대에 술소조활동에 계속 큰 힘을 넣어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높은 문화적소양을 갖춘 혁명가들로 키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본사기자

